

디지털 서울학 학술대회

디지털
서울역사
무엇인가



포스트 코로나 사회, 디지털 서울학

金 炫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교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hyeon@aks.ac.kr



이 저작물(PPT)의 인용 표시 방법:

김현, "포스트 코로나 사회, 디지털 서울학", 디지털 서울학 학술대회,
서울역사편찬원, 2020. 12. 7-11.



1. '서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서울학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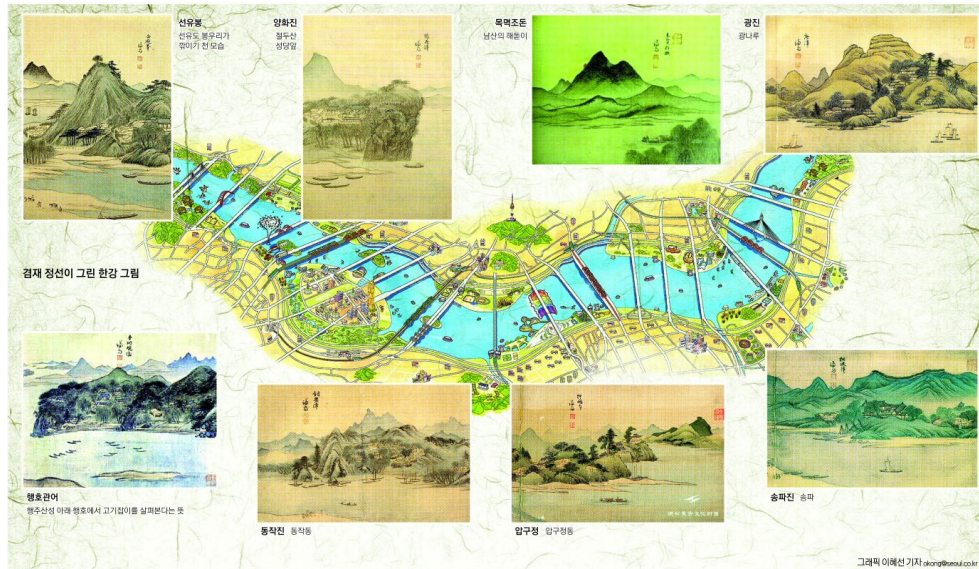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1. '서울학'이란?

“서울학은 어느 특정 분야에 속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술 활동의 총칭이다.”†



† 노주석, 서울택리지 테마기행 <18> 서울학(상), 서울신문 2014. 12. 8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08017002&cp=seoul#csidx5d26730b86f5e59aaf707b0340e5a76>

1. '서울학'이란?

❖ 내가 생각하는 '서울학'

- 세계적인 거대 도시 서울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생태학, 역사학, 문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음악학, 미술사학, 서지학 등 거의 모든 분과학문에서 이 도시와 관련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겠으나,
- 그러한 분과학문의 연구방법론과 연구목표에 몰입하는 연구는 그 학문의 이름으로 불리우면 될 것이고, 굳이 '서울학'이라 이름할 필요가 없을 것.
- '서울학'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그 도시가 거쳐온 시간,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실체에 관해, 어느 분과학문의 영역에 국한될 필요 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있는 지식을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노력에 대한 이름.





1. '서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서울학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2. 디지털 인문학

❖ ‘디지털 인문학’이란?

현대 인문학이 전문화의 함정에 빠져서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교육과 연구의 생기를 새로운 소통과 협업, 융합의 환경(디지털 환경)에서 부활시키려는 노력.

“(19세기에 들와와) 지식이 다양한 학문으로 분화하고 대학 내의 학문 분과로 제도화되었다. 통제와 제약의 뜻을 지닌 군대 용어에서 유래한 'discipline'(학과목)이라는 단어는 대학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학의 학과목으로 지식을 관리하는 모델은 여러 식민지에 수출되었고, 곳곳에서 빠르게 표준으로 정착했다.

..... 교과 과정을 과목별로 분화해 서로 연계시키지 않고 교육했고, 마치 공장 생산라인에 놓인 제품을 취급하듯이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주입했다. ‘교과목’으로 포장된 파편화된 지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찰하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일은 없었다.

20 세기에 접어들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기관(학교, 정부, 기업)에서 분업과 분과를 채택해 경계가 엄격해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전문화 문화가 새로 조성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누구나 당연시하는 규범으로 정착했다.” †

† 와카스 아메드, 이주만 역, 『폴리매스』 *Polymath*, 로크미디어(주), 2020. 9. pp. 154~158

2. 디지털 인문학

❖ 디지털 인문학 교육

-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지식의 탐구와 표현 🖱️ 디지털 큐레이션 (Digital Curation)
- 자기주도적인 탐구과 응용, 그것을 통한 자기표현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교육

❖ 디지털 큐레이션

-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전시를 위해 유물 하나 하나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식 정보를 찾아내고, 의미의 연결고리를 찾아 그 유물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 듯이,
-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자와 학생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유의미한 지식의 조각을 탐색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대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1. '서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서울학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3. 디지털 서울학

❖ 디지털 서울학

- 다학문적 지식탐구로서의 ‘서울학’의 취지에 봉사하는 디지털 기반의 학술연구 및 교육, 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활동
-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협업·융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서울학
-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서울학



3. 디지털 서울학

❖ 디지털 서울학이 추구할 소통·협업·융합 프레임워크

- ① 분과학문적 전문지식의 내용들이 그것이 다른 사실과 문맥의 연관성에 따라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다학문적 지식의 네트워크
- ② “서울”에 관한 사실적 증거(문화유적, 박물관 유물, 문헌기록, 현장조사 기록 등)와 그 증거에서 파생한 이론과 해설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융합 콘텐츠
- ③ 서울학은 “서울”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는 학문. 탐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장소감을 공유하고, 그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수반.
- ④ 디지털 자원을 접하는 지식의 소비자가 곧바로 서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방적인 소통 및 재이용가능(reusable) 지식 자원의 생산



1. '서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서울학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 서울시의 문화유적지 표석 설치 사업 (1985~계속사업) †

■ 사업 목적

- ✓ 시대의 변천 속에서 사라졌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곳’임을 알리는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 ✓ 표석과 관련한 사료조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있는 표석을 정비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 역사교육자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 사업 수행 절차

- ✓ 표석 정비 신청(제안) ⇒ 타당성 검토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표석 정비 사업대상 결정 ⇒ 시비 보조금 예산 교부 ⇒ 사업시행(자치구)
- ✓ 오류표석 확인 ⇒ 사료조사 ⇒ 현장확인 ⇒ 표석문안 및 설치위치 확정 ⇒ 설치



†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https://opengov.seoul.go.kr/budget/19771283>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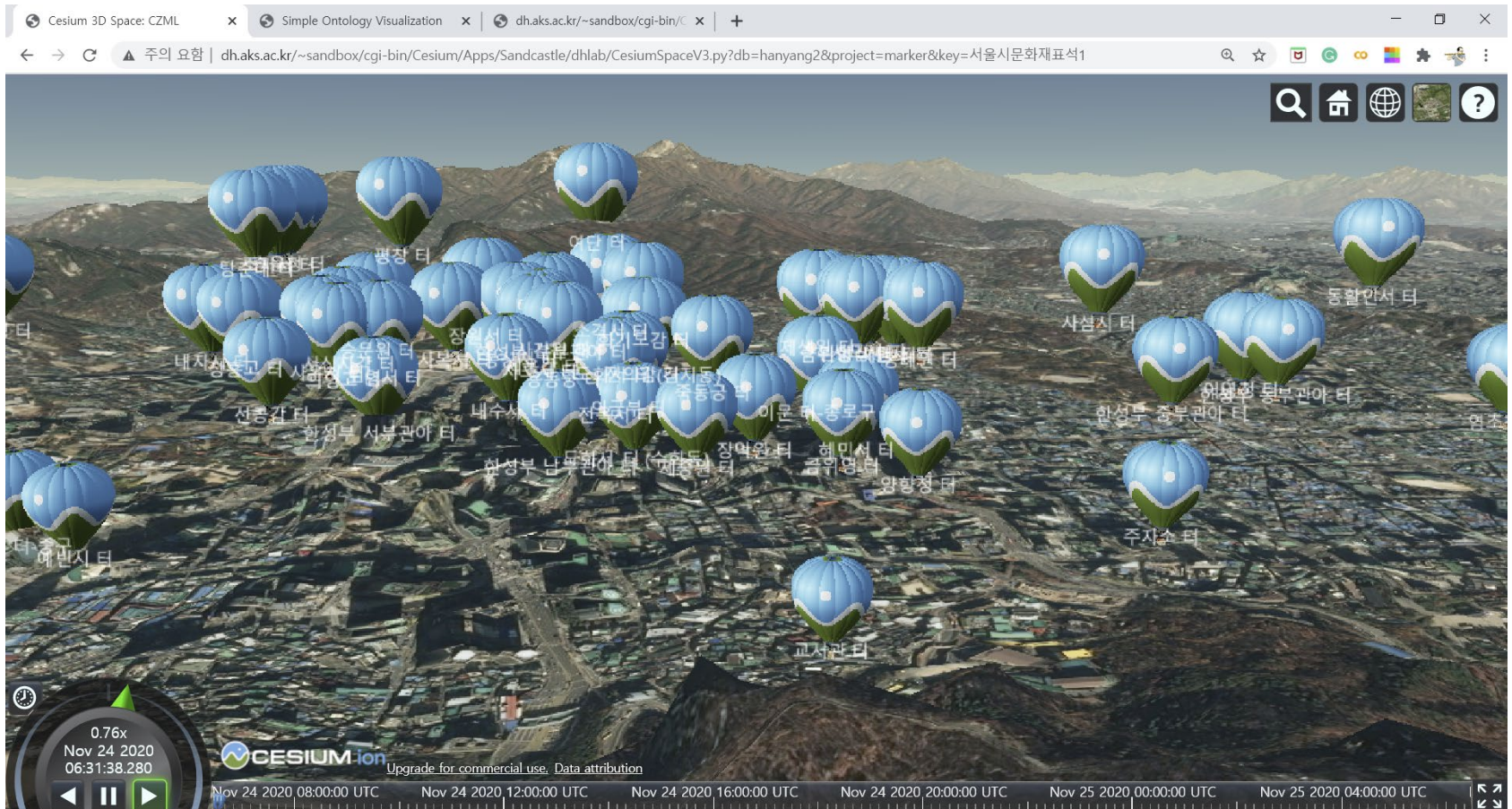
■ 사업 수행 경과

시행 연도	사업 실적	사업예산 (미집행) 단위: 천원
1985~2012	표석 설치: 335개소	
2013	「표석정비 가이드라인 용역(2013)」 실시 ※ 335개 표석 중 정비대상 193개(58%)로 조사 표석 문안 수정 67개, 표석 정비 18개	296,100 (157,145)
2014	신규디자인 표석 5개 시범 설치, 표석 정비 67개	158,250 (3,557)
2015	신규 표석: 7개 / 오류 및 훼손 표석 정비 95개	59,000 (36,082)
2016	사료조사 30개 / 오류 및 훼손 표석 정비 15개	59,000 (7)
2017	사료조사 36개 / 오류 및 훼손 표석 정비 39개	50,000 (70)
2018	사료조사 100개 / 오류 및 훼손 표석 정비 35개	100,000 (8,260)
2019	사료조사 100개 / 오류 및 훼손 표석 정비 29개	65,000
2020	사료조사, 오류 및 훼손 표석 정비, 표석 신규/재설치	65,000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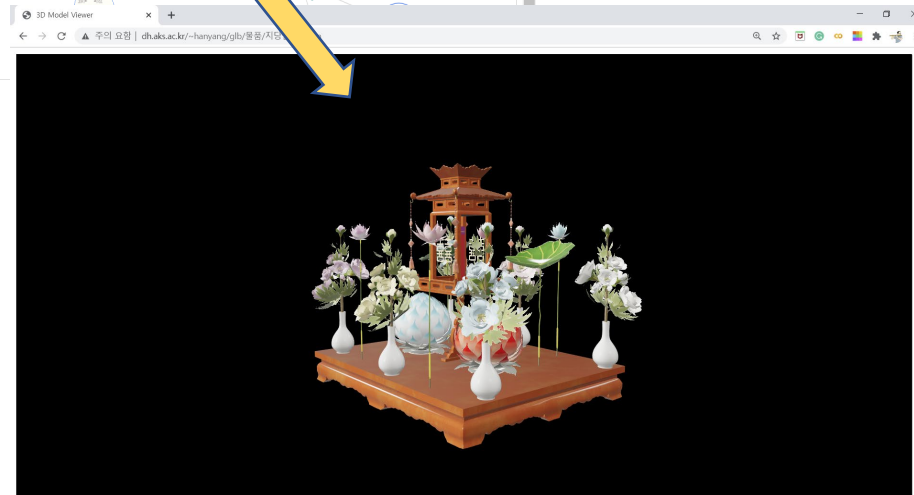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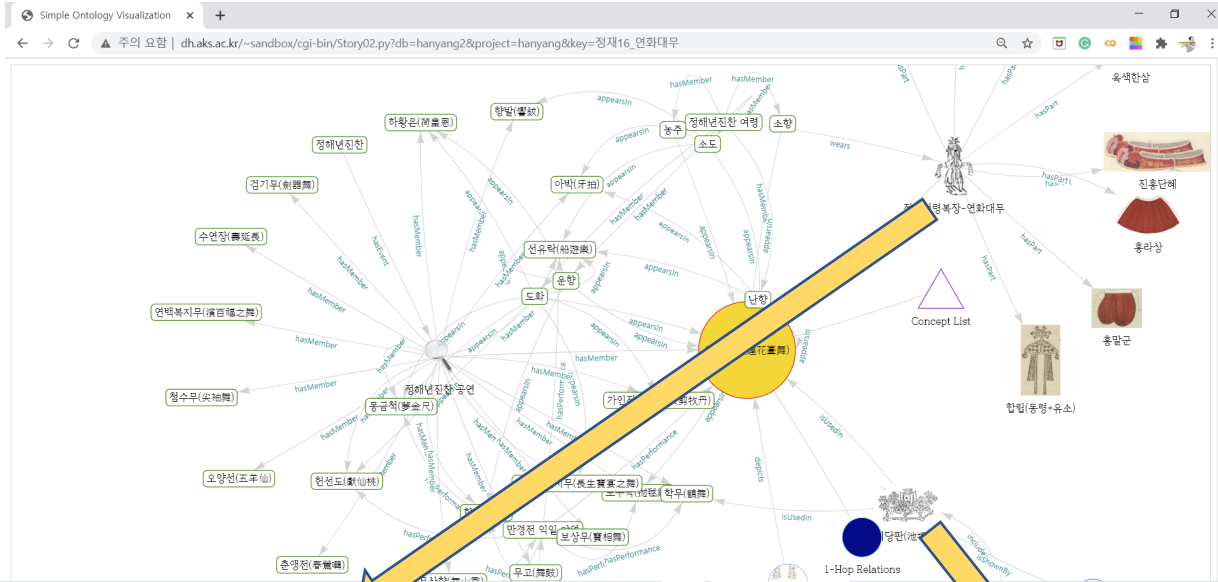
❖ 문화유적지 표석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큐레이션

▪ 문화유적지 표석 위치 3D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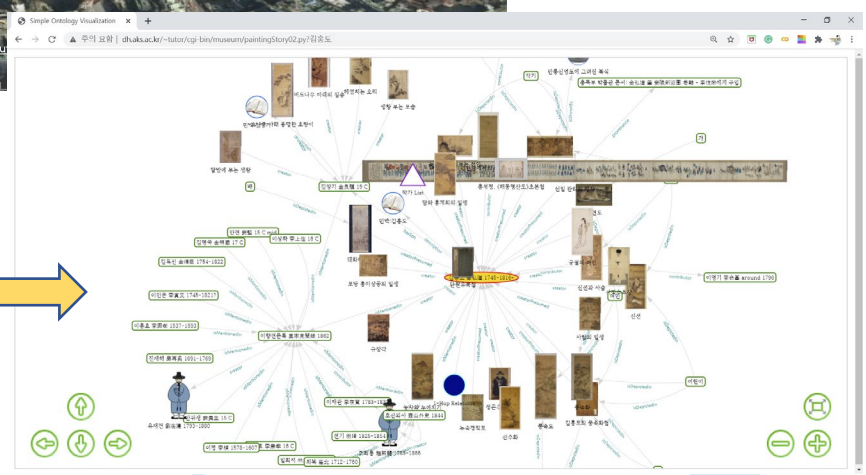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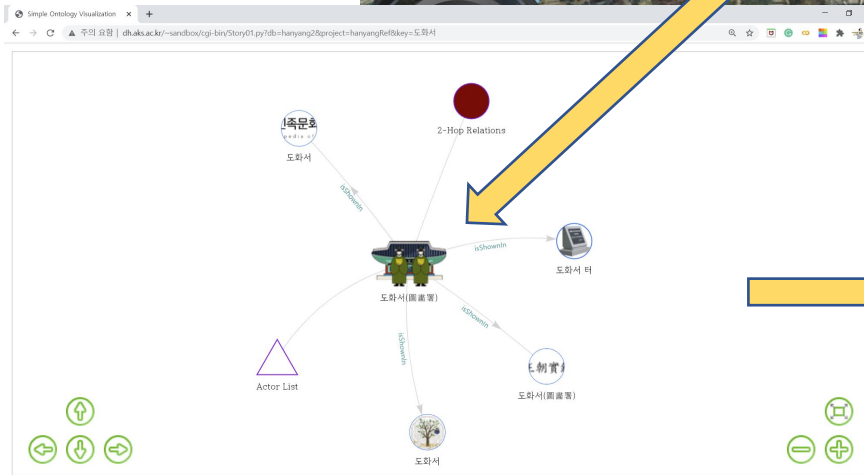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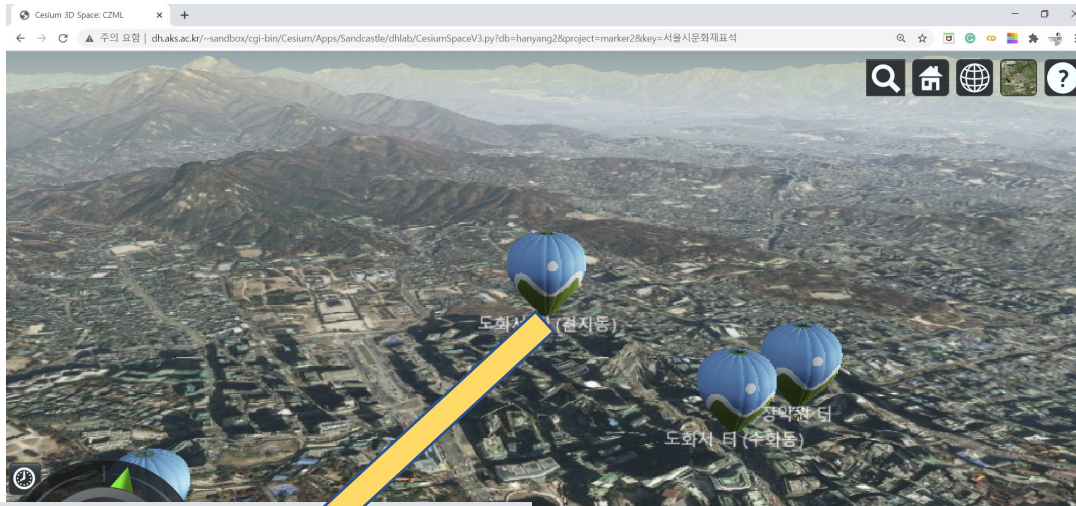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 관련 지식의 탐색(장악원) ⇒ 궁중연향 ⇒ 장악원 여악(공연, 인물, 복식, 도구)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 문화유적지 표석 위치 3D지도 ⇒ 관련 지식의 탐색(도화서)





1. '서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서울학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 포스트 코로나 사회

- COVID-19의 전지구적인 유행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기능이 크게 변화.
- COVID-19는 조만간 극복될 것이나, COVID-19로 인해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된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도,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
- 그 변화의 중심 키워드: 비대면(Untact),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 Korean New Deal for the post-COVID-19 er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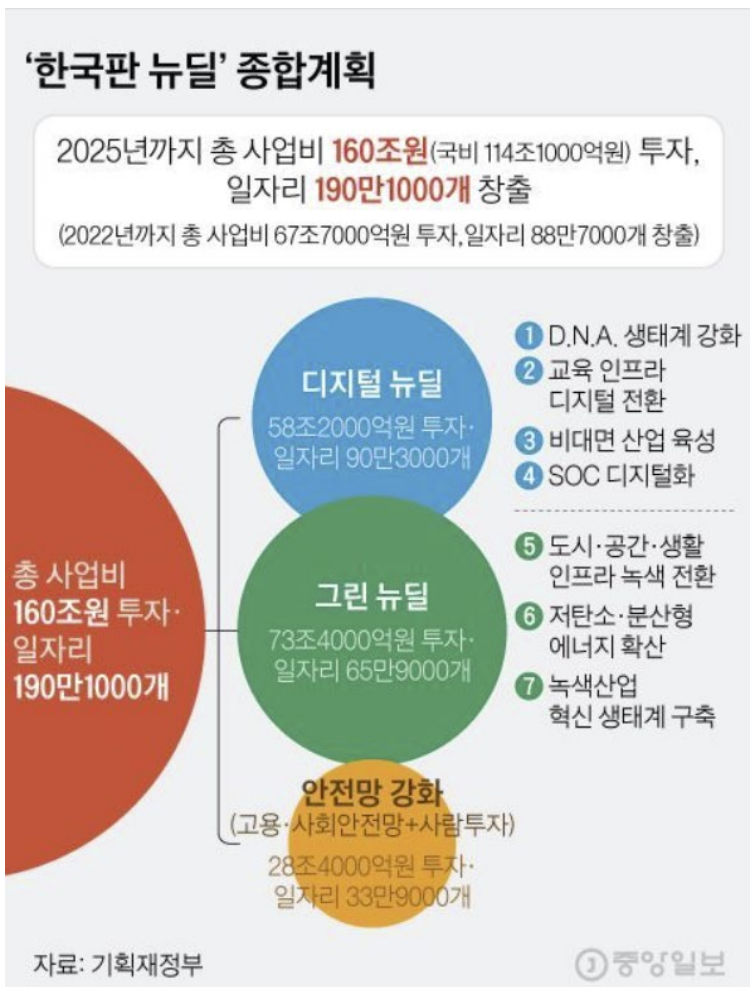
※ DNA: 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 Korean New Deal for the post-COVID-19 era, UNDP Seoul Policy Centre, 2020. 9. 10.

https://www.undp.org/content/seoul_policy_center/en/home/presscenter/articles/2019/Collection_of_Examples_from_the_Republic_of_Korea/korean-new-deal-for-the-post-covid-19-era.html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 ‘한국판 뉴딜 5년간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 개 만든다’, 중앙일보 2020. 7. 15. 종합3면



1. '서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서울학

4. 서울학 성과의 공유·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예시

5. 포스트 코로나 사회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 우리는 왜 현실 세계의 많은 것을 디지털 세계에 옮겨 놓으려 하는가?

☞ 현실 세계에는 그 많은 것 사이 사이에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그 벽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 디지털 서울학의 함의

▪ ‘서울’이라고 하는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의 환경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그 앞을 넓혀가는 노력. 굳이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환경에서만 실효성 있게 추구될 수 있는 것.

✓ (디지털적인 방법이 아니면) 다양한 분과학문의 지식에 횡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 (데이터 공유/데이터 자유이용의 방법으로)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다방면의 데이터의 축적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수행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 디지털 문식(文識, Literacy)

- 횡단적, 융합적 지식탐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인문학 공부의 도구였던 말과 글의 구사 능력에 더하여,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 검증을 통해 의미있는 지식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훈련이 필요.
- 이것은 현대 학교 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른바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 ✓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자가 이해하는 코딩 교육: 프로세스의 인코딩 데이터는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처리해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지도록 하는 기계적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일.
 - ✓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 탐구에 필요한 코딩 교육: 데이터의 인코딩 대상 세계에서 의미있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그 의미의 맥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로 편성하는 일.
- 디지털 시대의 지적 탐구 능력 증진을 위한 코딩 교육은 데이터 인코딩과 프로세스의 인코딩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 ☞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의미있는’ 데이터의 세계에서 자신의 흥밋거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키워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 ‘디지털 서울학’과 ‘디지털 문식(文識, Digital Literacy) 교육’

- 현재 우리나라는 「한양도성 타임머신」,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서울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관한 다양한 지식 자원을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일에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원 투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분야 지식·문화사업은 종래 아날로그 환경에서만 운용되던 것들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며,
-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은 이제 곧 그 역사와 문화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를 가장 풍성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6. 디지털 서울학의 과제

❖ ‘디지털 서울학’과 ‘디지털 문식(文識, Digital Literacy) 교육’

- 과거와 현대의 서울에 관한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가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무용한 데이터로 잠들지 않고, 젊은 디지털 원어민들에 의해 ‘서울’의 새로운 지식·문화 콘텐츠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디지털 서울학의 중요한 과제
- 디지털 서울학은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기회를 얻게 할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서울의 문화가 미래의 디지털 사회에서 더욱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할 지식·문화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